

As we come to verse 13 of chapter 14, Paul looks both back, to conclude his words to the weak Christians and forwards, to introduce his teaching to the strong. He doesn't stop with a merely negative command – “Stop passing judgment on one another”. He also gives us something positive and proactive to do, saying, in effect, “Instead, judge yourself.” We need to inspect our own conscience. We need to ask ourselves, “Have I asserted my Christian liberty in a selfish way, insisting on my own “rights” while thoughtlessly offending the conscience of someone else?” Do you think about what effect your conduct is going to have on other Christians in the body of Christ?

우리가 로마서 14 장 13 절에 이룰때, 바울은 믿음이 약한 크리스천들에게 전하는 말을 마무리하고, 나아가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한 그의 가르침을 소개하는 두 면을 되돌아 보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부정적인 명령으로 끝맺지 않습니다 – “서로에 대한 판단을 전달하는 것을 멈추라”. 그는 실상은 “대신에 너희 자신을 판단하라”라고 말함으로, 긍정적이고 숭선수범해야 할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에게, “나는 생각없이 다른 사람의 선악의 양심적 판단을 무시하며, 내가 갖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유를, 우리 자신의 ‘권리’라고 고집하면서, 이기적인 방식으로 우겨댄 적이 있는가?” 하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동들이 예수의 몸안에 있는 다른 크리스천에게 가져올 영향에 대해 생각하고 계십니까?

Paul is saying that, when the strong are insensitive to the weak, looking down on them as he mentioned back in v. 3, they can lead the weak to sin. How? Well, at the very least, it tempts the weak to harshness, a condemning spirit, a breaking of fellowship, and an unkind, ungracious spirit – the kind of judgmental attitude that Paul has warned them about in vv. 3-12 as we saw a couple of weeks ago. But also, possibly, the action of the strong could lead the weak to begin doing things that are against their consciences.

바울이 3 절에서 다시 언급한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무시하며, 그들에게 둔하게 반응할때, 그들이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할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떨게요? 글썄요, 가장 사소한 것들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혹독함이나, 비난하는 영, 혹은 성도간의 교제의 깨짐, 친절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영 등으로 유혹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 우리가 두 주 전에 살펴 보았던 3-12 절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경고했던, 그런 종류의 판단하는 태도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능하게는, 믿음이 강한 자들의 행동이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양심적 판단을 거스른 뭔가를 하기 시작하게 하도록 이끌수도 있습니다.

Paul raises again (as he did earlier in the chapter) the issue of the Old Testament “clean/unclean” food laws, which had caused a problem in the church in Rome. Paul is clear – no food is unclean in itself. Meat is clean. The weak are simply wrong in this area. Jesus declared all foods clean in Mark 7: 14-15. But if the conscience of a weak Christian troubles him and tells him that certain food is “unclean”, then he should obey his conscience. Why? If someone acts against their conscience, then even if the act is not wrong, it is wrong for them because they are not acting in accord with what they hold to be right behaviour for a Christian. Their faith has not informed their behaviour, even though it is not wrong – and “everything that does not come from faith is sin” (v. 23).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 문제를 야기시켰던 구약의 “깨끗하고/깨끗하지 않은” 음식에 관한 율법의 문제를 다시 제기합니다 (그가 이 장에 앞서 말하였듯이). 바울은 어떤 음식도 그 자체로 깨끗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고기는 깨끗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 분야에 단순히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14-15 절에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이 그들을 괴롭히고, 그에게 몇가지 음식은 “깨끗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그는 그의 양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만일 누군가가 그의 양심에 거슬러 행동한다면, 심지어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옳은 행동이라고 믿는것에 일치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비록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닐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행동에 스며들지 못하였습니다 –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은 죄이니라” (23 절).

Some people can't imagine using their Christian freedom because they were raised to think that certain forms of conduct are wrong – such as drinking alcohol, or wearing makeup. Intellectually, they realize that there is nothing in the Bible that forbids this or that behaviour, but they have been psychologically conditioned by years of legalistic training. It would be unfair and even cruel to force them into accepting their Christian freedom.

몇몇 사람들은 특정한 행동 양식이 – 술을 마시는 것이나 화장하는 것과 같은 행동 – 옳지 않다고 생각되도록 자랐기 때문에 크리스천의 자유를 접목시키는것을 상상할수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그들이 성경 어디에도 이런 저런 행동이

금지된 것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들은 심리적으로 수년의 율법적 훈련을 통해 규정당해 온 것입니다. 그들에게 크리스천의 자유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될 것이며, 심지어는 잔인한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You have enormous freedom as a Christian, and you should use that freedom in a spirit of thankfulness to God. But, if by using your Christian liberty you cause harm or offence to your Christian brother or sister, then love demands that you limit your conduct for the sake of him or her. And so, in v. 15, Paul gives the application of this principle to the Church in Rome – if the strong Christian causes distress to the weak Christian by eating meat, then he should refrain from eating meat out of love for his brother or sister in Christ.

여러분은 크리스천으로서 엄청난 자유를 갖게 되지만, 하나님께로의 감사가 충만한 성령 안에서 그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하는 데 있어, 다른 크리스천 형제 자매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그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들을 위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형제 자매의 사랑이 요구됩니다. 바울은 15 절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 만일 믿음이 강한 자가 고기를 먹음으로써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혼란을 가져온다면, 그는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고기 먹기를 삼가해야 하느니라.

There are some issues we stand firm on. We refuse to yield on clear biblical truth. But on matters where reasonable Christians differ, we yield to one another in love. Paul continues in vv. 16-18: “Do not allow what you consider as good to be spoken of as evil.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bu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because anyone who serves Christ in this way is pleasing to God and approved by men”. Those who are strong in the faith and free in Christ are not to become contentious with others over that freedom. If we flaunt our liberty in the faces of those who disagree, we will actually cause our liberty – and indeed the gospel itself – to be spoken of as evil. The Greek used by Paul infers that, by exercising our liberty in an unloving way, we will be causing the gospel itself,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to be blasphemed. So we must not make a major issue over a minor matter. We must not cause division over secondary issues. We must seek unity in love. Our love for one another will show our society that the Christian faith is about acceptance, forgiveness and peace – not legalism and rules.

우리가 확고히 맞서야 하는 몇 가지 이슈들은 있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성경의 진리를 포기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문제에는, 우리는 서로 간에 사랑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16-18 절에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그 자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 논쟁을 일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동의하지 않은 자들의 면전에서 우리의 자유를 뽐낸다면, 우리의 자유는 악한 것으로 비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 실로 복음 그 자체까지도. 바울이 사용한 그리스 어는, 사랑이 없는 식으로 우리의 자유함을 실행할 경우,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소식, 복음마저도 모독시키게 될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소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를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차적인 문제로 분열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화합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서로 간의 사랑은 크리스천의 믿음, 수용, 관용, 평강에 관한 것이지, 법칙이나 규율이 아님을 우리 사회에 알리게 될 것입니다.

One commentator tells of a church in the USA in which the members got into disagreement over whether to have a Christmas tree at the Christmas program. Some members wanted to have the beautiful symbolism of a tree. Others believed that the tradition of the Christmas tree had its origins in pagan practices, so a Christmas tree had no place in the church sanctuary. This disagreement turned into a terrible argument. There was even a brawl. One group dragged the tree out of the church – the other group dragged it back in. Before long, the two groups were in the local court, suing each other. The story was splashed across the front page of the community newspaper. The entire community was talking about it. The church became a laughing stock. The gospel of Jesus Christ was blasphemed in that community.

한 아나운서가,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로 멤버들 간에 의견 불일치를 가져온 미국의 한 교회에 관해 보도했습니다. 몇몇 교회 멤버들은 나무로 아름다운 상징을 나타내기를 원했고, 다른 이들은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통은, 그 기원이 무종교주의자들의 습관에 있기에, 그것을 신성한 교회에 둘 자리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 의견 불일치는 끔찍한 논쟁으로 이어졌고, 심지어는 떠들썩한 싸움까지 발생했습니다. 한 집단이 그 트리를 교회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 다른 집단이 다시 교회안으로 그것을 끌어 왔지요. 오래지 않아 그 두 집단은 서로를 고소함으로 법정에서 싸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역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였고, 전체 마을은 그것에 관해

## (Romans 14: 13-23)

이야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는 웃음거리가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복음이 그 지역 사회에서 모독당하게 된 것입니다.

The Christian faith is not about eating or drinking or Christmas trees or any of the other sundry issues that can cause division between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The Christian faith is about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An unbeliever, looking at a Christian, ought to see love, a righteous spirit, and a peaceful, joyful disposition. All too often, non-Christians look at the church and see nothing but a lot of stubborn, contentious, self-centred people who insist on getting their own way.

크리스천의 믿음이란,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간에 분열을 일으키는 소소한 이슈들이나, 먹고 마시는 문제나, 크리스마스 트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믿음은 성령님 안에 있는 의로움, 평강과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안믿는자들이 교회를 바라볼때, 사랑과 의의 영광, 평화롭고 기쁨에 찬 기운을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믿는자들이 교회를 바라볼때, 너무도 자주, 자기만의 방식으로만 하기를 우기는, 고집으로 가득차고,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볼수 없게 되지요.

Righteousness, peace and joy are gifts that come from God. They always go together, and they do not come from us – they come from God. We have seen the word “righteousness” many times before in Romans, and we know that it means God’s gift of a sense of worth. Because of the death of Jesus on our behalf, we are loved and accepted by God, and we have right standing in his sight. He delights in calling us his dear children. Righteousness is not something that we achieve – it is a free gift that comes from Go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With the gift of righteousness, we receive a sense of dignity and self-respect. That is what the world ought to see – Christians who are secure in their righteous standing before God, Christians who are confident without being conceited. Christians who demonstrate self-acceptance that is based on the grace and love of God.

의와 평강과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함께 가고, 그것들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전에, “의”라는 단어를 여러번 보았고, 우리는 그것이 존재 가치감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함을 압니다.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사랑받게 되었고, 또한 그의 목전에 설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의 자녀라 칭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의는 우리가 성취해 낸것이 아닙니다 –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값없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의의 선물과 더불어 자기 존중과 존귀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보아야 할 것들입니다 – 하나님앞에 그들의 의를 입고 설수있는, 안전을 보장받은 크리스천, 으스스대지 않는 자심감을 가진 크리스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반을 둔 자기 수용을 증거하는 크리스천인 것이지요.

The word “peace” refers to that quiet assurance that God is present in every situation, and we do not need to become upset or angry or anxious. When we demonstrate peace in trying circumstances (such as a sharp difference of opinion about some issue of conduct), we display our confidence that God is in control. The word “joy” is a delight in life that remains stable and durable even in the midst of pain, trials, disappointments, and uncertainty. Joy is not a result of comfortable circumstances. It is the ability to find life worth living even when circumstances are harsh and nearly unbearable. Joy results from a secure and trusting faith in God.

‘화평’이라는 단어는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이 존재하시므로, 우리는 당황하거나 분노하거나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조용한 확신을 뜻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몇몇 행위에 관한 문제를 둘러싼 날카로운 의견 대립 같은) 에서도 화평을 보여줄때 우리는 모든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우리의 자신감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는 고통과 시험, 낙심과 불확실함 가운데도 안정감을 유지하고 견뎌낼수 있는 삶의 즐거움을 말합니다. 그 기쁨이란 안락한 형편에서 오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는 처한 상황이 너무도 힘들고, 견딜수 없을 지라 할지라도, 살아갈 가치를 찾는 능력을 말합니다. 기쁨은 하나님을 안심하고 믿는 믿음에서 온 결과물인 것이지요.

If you are experiencing the righteousness, peace and joy that come from God, then you can easily yield to your brother or sister and forego some privilege or pleasure that your Christian freedom would otherwise bring you. If your Christian freedom would cause offence to another Christian, then give in for the moment and demonstrate your Christlike love and your obedience to God.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께로 부터 오는 그러한 의와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크리스천으로서의 자유함이 여러분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수 있는 몇가지 특권과 즐거움들을 내어주고, 형제 자매에게 쉽게 순종하게 될

## (Romans 14: 13-23)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함이 다른 크리스천에게 반감을 사게 된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예수님 닮은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증거하는데에 실패한 것입니다.

And so Paul continues in vv. 19-21: “Let us therefore make every effort to do what leads to peace and to mutual edification. Do not destroy the work of God for the sake of food. All food is clean, but it is wrong for a man to eat anything that causes someone else to stumble. It is better not to eat meat or drink wine or to do anything else that will cause your brother to fall”. The guidelines are simple: Enjoy your Christian liberty, so long as you do not destroy the peace of the church, offend the conscience of your brother or sister in Christ, or hinder his or her spiritual growth. You who are strong in the faith (having the maturity or experience in the Christian faith to adequately understand God’s truth) bear that burden. Do not insist on your rights.

바울은 19-21 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약하니라.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라고 하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 너희가 교회의 화평을 무너뜨리지 않고,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의 선악의 판단력을 상하게 하지 않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한, 너희는 너희의 크리스천의 자유함을 즐겨라.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진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크리스천 믿음의 성숙함과 경험을 가진) 여러분들은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고집하지 마십시오.

Peace is the work of God. Nothing can produce lasting peace among people – especially among people who come from different cultures, backgrounds, temperaments and generations – except the Spirit of God. Paul exhorts the Ephesian Christians to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through the bond of peace” (Ephesians 4: 3). If you destroy the peace of God’s church for the sake of some “right” you claim on the basis of Christian liberty, then you are destroying God’s work. The phrase “mutual edification” means “the building up of one another”. The kind of building up that Paul speaks of here refers to the learning and growth process that God wants us all to undergo. We are being edified as we learn more and more truth from God’s Word, and as we apply that truth to our lives. If we abuse our liberty and offend other Christians, we will cause them to become resistant to new insights and knowledge about the faith. We will interfere with the process of edification, with their spiritual learning and growth. This we must strenuously avoid.

화평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사람 사이에 화평을 유지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 특히 다른 문화, 다른 배경, 다른 기질과 다른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외에 비록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닐지라도– 비록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닐지라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크리스천들에게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에베소서 4:3) 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크리스천의 자유에 기반을 둔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하나님 교회의 화평을 무너뜨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서로 보완적 함양”이란 “서로를 세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배움과 성장의 과정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많은 진리를 배울수록, 또한 그 진리를 우리 삶에 더욱 적용할수록, 우리는 성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남용하여 다른 크리스천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그들의 믿음에 대한 새로운 시야와 지식에 저항하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적 배움과 성장에, 그들의 함양과정을 훼방놓은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여 피해야 할 것입니다.

Should the strong Christian always forsake his or her Christian liberty in order to keep the peace? No! It is healthy and edifying for strong Christians to gently and courteously exchange views on these issues. If the strong Christian never speaks up to talk about his or her Christian liberty, then every question in the church will be decided by the views of the weak in the faith, those who are the most narrow, legalistic and prejudiced. That is not healthy for any church, and it would result in the gospel becoming identified with legalism. Strong Christians should raise questions and lovingly state their views, then wisely yield if the righteousness, peace and joy of the church might be undermined.

그렇다면 강한 크리스천들은 화평유지를 위해 언제나 그들의 기독교인의 자유함을 버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자들이 온유하고 조심스럽게 그 문제들의 관점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건전하고 권장할 일입니다. 만일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들의 크리스천의 자유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문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나 광장히 비좁고 율법적이고 편견을 가진 자들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이는 어느 교회에서건 권장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율법과 동일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강한 믿음의 크리스천들은 그들의 관점을

애정을 담아 의문을 던지고 설명하고, 그런다음 그것이 교회의 의와 화평과 기쁨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현명하게 이끌어내야 합니다.

Paul says in v. 20b that “it is wrong for a man to eat anything that causes someone else to stumble”. In other words, it is wrong to do anything that would cause another person to violate his or her own conscience. But it is not wrong to discuss these issues so that everyone in the church can re-examine his or her on assumptions and convictions. We never want to cause a fellow Christian to violate his convictions, but we all, as brothers and sisters in the family of God, want to continually refine our beliefs so that we can grow more and more like Christ. After all, as we saw in Romans 8, God’s great purpose for us is that we might be “conformed to the likeness of his Son” (v. 29).

바울은 20 절 뒷부분에서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라고 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그의 양심에 거슬러 뭔가를 하게 하는 어떤 것도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모든 사람이 어떤 이의 추측에 의한 단정이나 신념을 재 검토할수 있도록, 어떤 이슈들을 토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동료 크리스천이 그의 신념에 어긋난 행동을 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우리모두는 또한 하나님의 가족안에 있는 형제 자매로서, 더욱더 성장하여 예수님 닮아 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같고 닦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로마서 8 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위대한 목적은 우리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 (29 절) 입니다.

The translation of v. 22a of Romans 14 in the NIV is misleading. It suggests that we should keep quiet about our liberties, that we should never voice our beliefs about our Christian freedom to anyone else (other than God). That is not what Paul says. The RSV translates it more accurately, “The faith that you have, keep between yourself and God”. In other words, let God and his Word be the basis of your faith – and nothing else. Be sure that your conduct is based not on pride, nor on the desire to show off your freedom before others, but on your relationship to God and your understanding of his Word. If you do that, you will be affirmed and blessed, as Paul goes on to state in the second half of v. 22: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condemn himself by what he approves”.

뉴 인터내셔널 버전의 로마서 14 장 22 절의 번역은 오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함을 함묵하고, 결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크리스천의 자유에 관한 믿음을 입밖에 내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개정된 표준 번역에서는 그것을 좀더 정확하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너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과 너희 자신 사이에 지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너의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라 –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너희의 행동이 자만에 근거한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자유함을 뽐내기 위한 것도 아닌,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와 그의 말씀에 대한 이해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바울이 22 절 후반에 언급했던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옳다고 여겨지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If you have based your faith solely on God and his Word, then you will live in such a way that your conscience is clear and free of condemnation. You will be free, happy and blessed. But if you have not based your beliefs on the firm foundation of God’s Word, then your conscience will condemn you. Even if you are doing something that God permits, the fact that you are acting out of self-indulgence rather than faith will mean that you are sinning. The writer of the letter to the Hebrews says,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11: 6). Faith means believing what God has said. So if you want to please God, then act in faith, basing your conduct on the Word of God.

만일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만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양심은 정죄로부터 자유롭고 확고한 방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하고 행복하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한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스스로의 선악의 판단력은 여러분을 정죄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한 무언가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믿음보다는 자기만족으로부터 나온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편지의 작가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히브리서 11:6) 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행동거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이 두면서, 믿음안에서 행동하십시오

In conclusion, summarising Paul’s teaching in Romans 14, the first and most important principle is to determine if the contentious issue is in the “disputable” area. The way to do that is to look at the Bible. If there is a broad disagreement among mature Bible-honouring Christians on some issue (like baptism), then we must be willing to concede that it is “disputable”. Anyone who wants to put everything into the disputable area needs to be warned

about the dangers of that tendency, and anyone who wants to put little or nothing in the disputable area must be warned of the dangers of that perspective.

결론적으로 로마서 14 장의 바울의 가르침을 요약하자면, 가장 우선시 되고 가장 중요한 원칙이란,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이슈가 과연 “논의의 여지가 있는” 영역에 있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방법은 성경을 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몇몇 이슈 (침례식과 같은)가 성숙한 성경을 경외하는 크리스천 사이에 광범위한 의견 불일치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기꺼이 인정할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논의의 여지가 있는’ 영역에 놓는 사람들은 그러한 경향성이 가져올 위험에 관한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고, 또한 어떤 이슈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영역에 놓지 않는 사람도, 그의 관점의 위험성을 경고받아야 합니다.

After we agree to put an issue in the disputable area, then we need to follow Paul’s advice. The weaker Christians must be willing to really review the Biblical data, rethink their position, and refuse to condemn those who disagree. Instead, they must allow others to follow their own consciences in that area. At the same time, the stronger Christians must also be willing to review the Biblical data, rethink their position and be willing to curb their freedom to avoid discouraging or harming fellow believers, especially if their convictions in the area are very strong. This then will be a Christian community that is able to exhibit the righteousness, peace and joy that the Holy Spirit gives to members of God’s kingdom and so bring honour to God and to the gospel of Jesus Christ.

우리가 논의의 여지가 있는 분야로 동의한 후에는, 바울의 조언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더 약한 크리스천은 자발적으로 기꺼이 성경적 자료를 진실로 검토하고, 그들의 위치를 다시 생각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더 믿음이 강한 크리스천들은 역시 기꺼이 성경적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그들의 지위를 다시 생각하여, 동료 크리스천들을 낙심케하거나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특히 그 이슈에 그들의 신념이 매우 강하다면, 그들의 자유를 기꺼이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의 멤버들에게 주신 의와 화평과 기쁨을 드러낼수 있고, 그러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복음에 영광을 올려 드릴수 있는 크리스천 공동체가 되게 될것입니다. 아멘

Amen

*Prepared by Rev. Grant Lawry, Canterbury Presbyterian Church, Canterbury, Melbourne, Australia for use of the Canterbury congregation.*